

# 미국산 쇠고기로 인한 양돈농가의 피해와 대책방안

대한양돈협회장 김동환

## 1. 머리말

지난 4월 18일 미국과의 쇠고기 협상 타결로 국산 돼지고기와 가장 경쟁 육류인 LA갈비를 비롯한 미국산 쇠고기가 사실상 연령과 부위 제한 없이 전면 개방되었다. 하지만 한·미 쇠고기협상 타결 이후 광우병 문제를 우려와 국민건강 주권 포기 문제를 모든 언론매체가 연일 주요 뉴스로 다루고 있으며, 이에 따른 국회청문회와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에도 불구하고 연일 촛불집회가 끊이지 않는 등 미국산 쇠고기 수입 개방에 국민들의 반대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또한 한국과 유럽연합(EU)이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연내 마무리될 예정이라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어 미국, 캐나다, 유럽 등 이른바 축산 선진국에서 생산된 쇠고기, 돼지고기와 가공품들과 국내산 돼지고기가 치열한 경쟁을 예고하고 있는 상황이다.

농촌경제연구원은 뼈가 포함된 미산 쇠고기가 수입될 경우 올해 돈가가 07년 대비 9% 하락한 20만1천원을 형성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최근 미산 쇠고기 수입 재개와 더불어 올해 미산 쇠고기 수입량이 07년 20만3천톤 수준보다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지난해 4월 체결된 한-미 FTA로 돼지고기의 경우 냉동은 발효 후 10년, 냉동은 2014년부터 관세가 철폐된다. 농촌경







제연구원은 FTA 발효 첫 해 돼지고기의 국내 생산액이 300억원, 2018년에는 1천874억원 감소할 것으로 분석하기도 했으며,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현재 협상을 진행 중인 한-EU FTA의 경우 양돈업이 최대 피해 분야로 470~800억원의 생산액 감소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다.

이와 더불어 국제 사료곡물의 시세가 지속적인 상승으로 인해 생산비는 계속해서 오르고 있다. 더욱이 국제 곡물의 가격 상승이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구조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 문제가 심각하다. 06년 11월을 시작으로 폭등하기 시작한 사료가격의 인상은 07년 3월, 5월, 10월, 08년 1월, 3월, 5월 등 이미 7차례가 인상되었고, 이와 같은 상황에서 돼지 값도 좋지 않았다. 사료값이 오르면서 kg 당 생산비가 3천원 이상을 훌쩍 넘어섰음에도 08년 3월까지 돼지값은 2천8백원대를 넘어서지 못했다. 6개월 가까이 생산비 수준 이하의 돼지 값과 사료가격의 폭등, 고질적인 소모성질환이 지속되었다. 이와 같은 생산비 상승과 저돈가는 양돈농가의 사육심리 약화와 폐업으로 이어졌다.

통계청에 따르면 3월 기준 양돈농가는 7천900호로 전분기보다 1천900호가 급감했다. 규모화에 따라 분기마다 200~300호 가량 감소세에 있기는 했지만 1분기에 1천600~1천700호 가량 폐업이 늘어난 것은 현재 양돈농가의 위기감을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규모별로는 1000마리 미만 소규모 농가와 1,000~5,000마리를 키우는 전업경영 농가 위주로 감소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사육두수도 898만마리로 07년 12월부터 3개월 동안 6.5%가 준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모돈 역시 93만6천마리로 전분기보다 6.8%, 일년 전에 비해 7%가 각각 줄었다.

최근 돼지 값이 오름세를 보이고 있으나 지속적인 양돈업의 불안요인으로 인해 양돈농가와 사육두수 감소추세를 멈추긴 어려워 보인다. 폐사 역시 좀처럼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은 등 양돈농가의 앞날이 불투명하다. IMF 보다 더한 위기라는 양돈농가의 자조섞인 한숨이 양돈농가가 체감하는 위기감을 나타내고 있다. 이처럼 최근 양돈업은 대외내적인 위기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어 양돈농가들의 생산성 향상 등 자구 노력만으로 극복하기에는 한계성이 분명하다. 최근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한 국민적 관심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지만 정작 어려움에 직면한 축산농가 대책에 대한 논의는 뒷전에 밀려 있는 듯한 인상을 지우기 어렵다.

특히 전문가들은 미산 쇠고기 수입 이후 유통과 소비 등에서 국내 시장 잠식 효과가 적어도 1년 안에는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어 더 이상 대책을 미룰 수 없다는 지적이다. 그 어느 때보다 국내 양돈업의 국제경쟁력 제고와 함께 지속가능한 양돈업을 위한 정부 실질적인 생존정책 마



련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와 같이 양돈농가 및 돼지 사육두수 감소, 한-미·한-EU FTA, 미국산 쇠고기 수입 전면 개방이 동시에 이뤄지면서 양돈업은 또 다른 패러다임의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양돈업을 둘러싸고 있는 불안요인들은 전방위적으로 양돈업을 압박하는 상황에서 국내 양돈업이 어떻게 국제 경쟁력을 갖추고 선진 축산국과 대등하게 경쟁하며 발전할 수 있는냐는 농가와 업계, 그리고 정부의 노력이 어떻게 하나로 모아지느냐에 달려있다. 지금은 향후 10년, 20년 후의 한국 양돈산업을 책임져야 하는 중요한 시기로 다시 한번 양돈업 발전을 위한 범 양돈인의 결집된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 2. 양돈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대응방안

### 가. 돼지열병 청정화 및 PRRS 안정화를 통한 대일수출 재개

현재 폐사율이 30%가 넘는 양돈 생산성 저하는 선진 양돈국과 경쟁에서 우리 양돈산업의 발목을 잡는 주요 문제이다. 양돈협회가 실시한 '2007년 전국 양돈장질병실태조사' 결과에서 PRRS가 주요 돼지소모성질환의 원인으로 나타난 바 있을 정도로 PRRS 청정화 및 안정화는 생산성 향상의 주요 과제이다. 이를 위해 종돈장부터 PRRS 안정화사업 추진과 비육농장 격리사 및 자가백신 처방 등 다각적인 지원으로 소모성질환 피해 최소화를 통해 생산성 향상을 도모해야 한다.

또한 국내 돈가 안정 및 대일 무역역조 개선을 위해서는 대일수출 재개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 돼지열병 청정화이다. 양돈협회는 돼지고기 냉동육의 완전 개방되는 2014년 이전에 돼지열병청정화를 시키겠다는 강력한 정부 의지표명으로 돼지열병 청정화 계획 수립이 필요함을 정부에 건의하여 정부 관계 기관 및 농가의 역할을 주문하였다.

### 나. 시설현대화를 통한 생산성 향상

우리 양돈산업이 해외 양돈 선진국과 경쟁을 위해서는 현재의 MSY14두 수준의 양돈 생산성을 개선해 MSY20두 경쟁력으로 환골탈태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양돈농가의 생산성 향상을 통해 생산비를 절감하는 노력과 함께 생산성 저하의 가장 큰 원인인 소모성 질병을 방지할 수 있도록 축사시설환경의 개선이 필요하다. 지난 수년간 농가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 소모성질환 해



결을 위해서는 시설 환경의 개선없이는 구조적인 해결이 요원하기 때문이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축사시설 현대화 자금 보조비율을 현재 20%에서 40%로 상향조정하고 조기 집행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MSY 14두의 한국양돈산업이 선진 양돈국과 경쟁할 수 있도록 MSY 20두 이상의 생산성을 도모해야 한다.

#### 다.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방식의 분뇨처리

양돈산업에 있어 가장 어려운 문제가 가축분뇨 처리문제이다. 이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지역사회와 소비자들에게 깨끗하고 친환경 양돈산업에 대한 인식을 심어주기 어렵다. 이러한 차원에서 최근 친환경 자연순환농업의 확산과 정착은 바람직한 대안이다. 지속적으로 친환경 축산을 장려하는 한편 아직 자연순환농업만으로는 가축분뇨 처리문제에 한계가 있으므로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방식으로 환경부의 공공처리장과 같은 대형공공처리장을 확충해야 한다. 이를 통해 전업규모 이상 양돈농가도 처리비용만 부담하고 위탁처리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공동자원화시설 운영사업에 정부보조를 확대 지원을 통해 농가는 사육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조성이 필요하다.

#### 라. 품질 고급화 장려금 확대지원

다가오는 미국산 쇠고기와 수입 돼지고기와 경쟁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 돼지고기의 맛과 품질이 좋아야 한다. 특히 등급별 지육정산 방식 도입을 통한 고급육 생산 유도 대책이 시급하다. 미국산 쇠고기와 수입 돼지고기에 맞서 품질로 경쟁할 수 있도록 돼지고기 품질 향상을 위해 1+ 등급에만 지급될 품질향상지원금을 1A 등급 돼지고기까지 확대 지원하여 사료값 폭등에 따른 생산비 부담 완화와 함께 고급육 생산지원이 될 수 있도록 장려해야 한다. 또한 우리 양돈농가들은 소비자들이 믿고 우리 돼지고기를 드실 수 있도록 농장에서 식탁까지의 HACCP 적용 등을 통해 위생관리 수준을 향상시키고 체계적인 농장관리를 통해 생산성 향상을 도모해야 한다.

#### 마. 사료안정기금 도입

축산물 생산비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사료비이다. 무엇보다 양돈농가들은 사료비 절감을 위해서는 돼지의 사료효율을 높이고 비용적으로 낭비가 되는 허실이 되는 요소를 줄이는 노력을 해야 한다. 정부는 양돈농가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축산업계에 사료구매자금 1조



원을 지원했지만 이미 1조4천억원이 지원된 상태이며, 까다로운 대출조건으로 인해 당초 기대에 못 미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단기적으로 사료구매자금을 확대하여 실수요자 중심으로 지원을 강화하고, 장기적으로 우리나라도 일본과 같이 곡물가격 급등시를 대비해 사료안정기금을 도입하여 사료가격 안정화를 시켜야 한다.

### 3. 맺음말

우리 서민들이 가장 즐겨찾는 돼지고기를 생산하는 우리 양돈산업은 농축산물 생산액 중 쌀 다음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국내 육류 소비량 면에서도 전체 축산물 소비량의 54%(87만톤)를 차지할 만큼 대표적인 식량자원으로 보호할 가치가 높은 산업이다. 국내 돼지고기 시장은 오는 2014년을 기점으로 무관세로 인한 완전 자유경쟁체제로 들어서게 된다. 국내 양돈산업이 양돈 선진국과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다.

양돈협회는 '돈육협회'로 확대 개편하여 생산과 아울러 도축, 가공, 유통, 소비까지 포괄하는 양돈산업 대표조직으로 확대를 추진중이다.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양돈산업에 대한 정책적 접근을 '생산'이 아닌 '소비자 중심의 돈육산업'으로 접근이 절실하다. 양돈산업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정책 기능 창구의 일원화로 일관성 있는 국가 돈육산업 정책이 추진되어야 만이 FTA,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등의 파고에 양돈산업이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축산물은 이미 국민 건강의 주요 단백질 공급원이자 국민식생활의 필수식품으로 정착했다. 많은 대내외적 어려움 가운데서도 국내 양돈농가들은 국민이 믿고 먹을 수 있는 안전한 돼지고기 생산을 위해 매진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식량안보차원에서 안전하고 신선한 축산물을 원활히 공급하기 위한 정책마련에 최선을 다 해야 할 것이다.

우리 양돈농가가 희망을 잃지 않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정부에서 우리 축산산업이 갖고 있는 가치를 제대로 인정하는가에 있을 것이다. 우리 국민 먹거리 산업으로서 우리 양돈산업을 지키려는 정부의 의지와 더불어 양돈농가 역시 고품질 돼지고기를 생산하는 농가의 본연의 역할에 보다 충실히 한다면,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더욱 성장 발전할 것으로 확신한다.